



사하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식당 술집 호텔 등으로 가득한 순지리. 어지간한 크기의 읍내보다 더 변화하다.

통도사 사하촌은 통도사 아래의 순지리와 뒤쪽의 지산리이다. 오후 세 시쯤 통도사에 도착해 절집을 둘러보고, 절 아래 마을인 순지리로 향했다. 사하촌이라고는 하지만 촌(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보이는 것은 식당이요, 러브호텔이요, 술집이다. 어지간한 크기의 읍내보다 변화한 곳이다. 마을의 내력을 물어보러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보지만, "모릅니더"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안 내소에 문의를 했더니, 평산이나 지산리에 가면 더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한다.

그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저 쪽으로 가서 구도로를 타고 가면 됩니더" 한다. 구도로가 어디 있는지, 알 턱은 없지만, 무작정 가리킨 방향으로 향한다. 아트막한 고개 하나를 오르니, 마을은 없고, '통도 환타지'라는 놀이동산이 나온다. 상가가 발달하다 유원지까지 생겼다. '통도환타지'를 지나 계속 나아가니, 어느새 도착한 곳은 통도사 나들목 부근이다. '행여 내가 길을 잘못 보았을까?' 하는 생각에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그래도 없다. 다시 간다. 없다. 이번에는 통도사 나들목 인근에서 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본다. 물어볼 사람도 없다. 집착이 가는 마을길을 여러 군데 들어가 본다. 그래도 평산과 지산은 없다. 어둑어둑해진다. 우연히 낮은 마을 앞 버스정류소를 겸한 가게 주인에게 물었더니,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쪽 가다 좌회전해서 쪽" 가라고 한다. 그때서야 이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인다. 마침내 평산 지산을 말해주는 표지판이 보인다. 이곳도 숲채 음식점이다. 휴련소, 닭도리탕, 매기 매운탕, 돼지 갈비 등 메뉴도 다양하다. 마을을 찾기는 했지만, 선뜻 들어가서 마을의 내력을 물어볼 곳은 없다. 그새 밝았다. 취재를 마치고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마을을 접는다. 네댓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셈이다.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③ 영축산 통도사

저녁을 먹으러 손두부 식당으로 향한다. "그 집 아주머니가 저 식당 하기 전에도 다른 식당에서 오래 일했다겠으니 좀 알 겁니더"라고 말하던 안내소 직원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식당에 들어가니, 일하는 사람들은 말 건넬 틈 없이 바쁘다. 용건을 말했더니, "내가 뭐 아는 기 있어야지"하면서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말을 덧붙인다. 식사를 하면서 한잔을 기다려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야습시쯤 되어서 나타난 일하는 사람 하나가, "아저씨, 우리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러다. 계산을 하러 나왔다. 주인 여자가 "아까 뭐 물어 보신다고 안 했어요?" 한다. 웃음이 나온다. 우리나라 삼보 사찰의 하나인 불보사찰 통도사. 유명세 탓에 주위에는 장사꾼만 남은 것 같다. 그도 좋은 일이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살림이니.

다음 날, 또 하나의 사하촌인 지산리로 향한다. 평산 마을과 지산 마을이 따로 있지만 합쳐서 지산리라 칭한다. 영축산 바로 아래 위치한 마을. 마을 주위에는 드물지 않게 암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집들이 식당과 민박집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몇 집은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다. 구판정 옆 노인정에 몇 사람이 모여 있다.

"한 바탕입니더."
통도사와 마을과의 관계를 묻자, 김쌍연(71. 지산 할머니의 대답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기 마을에서 이 마을은 1반이고, 통도사는 3반이고 그

랬다."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그 전에 배급 같은 거 있을 때, 이장이 통도사 갔다 준다, 3반에 간다고 그랬다." 이화연(77. 지산 할머니의 말이다.)

"여기는 모릅니더. 절이 오래 됐는지, 마을이 오래 됐는지. 그거 알만한 노인네들은 다 세상에 버리고." 원래 있던 마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마을이 지금의 크기로 형성된 것은 50여년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스님들의 속가 몇 채가 있었고, '오막살이 쪼만 있었'다고 한다.

"50년쯤에 다 돌아왔지. 전쟁 끝나고 피해 온 사람 많지." 김홍조(71. 평산 할아버지의 말이다. "옛날에는 통도사 땅이 많으니까 땅 빌어먹고 살 수 있어. 절이 있으면 지아먹고 살 수 있어 들었지." 이화연 할머니의 말에, 땅이 평평한 곳이 많으니, 마음대로 개간하고 그랬었다고 하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조매곡씩(개간을) 해 가면, (소작료를) 다 한 톨도 받아가고 두 톨도 받아가고 그랬지. 그레 세를 가져오라 한다니까네."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마을 말고는 다 절 산이라. 질 밭고 밭기는 것도 다 절 땅인데, 그레 질도 크게 못 넓혔다 아닙니까."

지금도 질 땅을 소작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지금 누가 질 땅 질락하나. 다 회사 다녀왔고 없어요." "농토 이거 바라보고는 지 것도 아닌데 뭐, 빌어먹기 딱 좋지." 농촌의 현실이 아프게 담긴 대답만 쏟아진다.

통도사=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그릇 귀신 신정희 선생님

“이것이 내 종교”



50여 년 명맥이 끊겼던 조선 사발을 재현시켜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을 떠돌았던 신정희(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74번지·사진 선생의 작업실에는 어떤 안내판도 없다.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장작 가마와 무수히 쌓인 장작더미만이 도자기 굽는 곳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찾아간 작업실에 선생은 없었다. "왜 환란이 없대요?" 물었다. 바쁘게 그릇을 쓰고 있던 여자가 "다 알고 찾아오는데요"라고 대답했다.

방금 나갔다는 선생은 한 시간쯤 후에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1930년에 태어나 열여덟 살 때 우연히 한 시인이 준 청자사공마리 하나가 인연이 되어, 우리 그릇에 푹 빠져버렸다는 그릇 귀신. 그릇에 미쳐 밖으로만 떠도는 선생을 위해 집에서 굽을 세 번이나 했다는 그릇다.

"이게 내 종교라." 말을 잘 알아들지 못하는 선생은 내게 차를 권했다. "30년 전에만 해도 그저 취도 안 했어." 선생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의 사발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들은 이미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할아버지가 워낙 주는 것을 좋아 하시거든요." 옆에 있던 제자가 덧붙인 말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이채롭다. 선생이 도예 교육을 통해 길러낸 제자는 아들 4형제를 비롯하여 30명 정도에 이르렀고, 전국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통칭 '申正熙家'라 한다.

벌써 70대 후반에 이른 나이.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시니까, 단호하게, "그림 하지" 그러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나를 배웅 나온 선생. 우중충한 하늘을 보고난 후 높게 쌓인 나무더미를 가리키며, "이것을 왜 안 태고 갔을까?" 나무에 비둘기바 격정이다.

순지리 내력 아는 사람 없고 어지간한 읍내보다 더 변화 현재 지산리는 한국전쟁 후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 된 마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피난 온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 크기의 지산리가 형성되었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시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사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숙 남녘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호텔(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켄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3주 2월 22일 - 2월 28일 [16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리
2월22일[목]	발 안	-	안산팔곡 26km
2월23일[금]	팔 곡	-	신 천 29km
2월24일[토]	신 천	월미도	송현사거리 27km
2월25일[일]	송현사거리	-	김포장기 26km
2월26일[월]	장 기	-	강화읍 21km
2월27일[화]	강화읍	-	외포리 19km
2월28일[수]	외포리	마니산참성대	합허동천 21km

제14주 3월 1일 - 3월 7일 [160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리
3월 1일[목]	합허동천	-	대곶 19km
3월 2일[금]	대곶	양촌검단	승가대학교 21km
3월 3일[토]	승가대학교	-	범안정사 22km
3월 4일[일]	목동	의사당앞 - 국립묘지 - 잠 실	23km
3월 5일[월]	잠실	- 태 릉 - 4.19탑 - 정 릉	27km
3월 6일[화]	정릉	- 청 와 대 - 시청앞 - 서대문	23km
3월 7일[수]	서대문	상암	일산 지장도량 25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